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口

시각체험 『유기』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가지 테마로 나눈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감** (the five senses)은

미각(the sense of taste),

시각(the sense of sight),

후각(the sense of smell),

청각(the sense of hearing),

촉각(the sense of touch)을 말하며

각 회차 별로 한 가지의 테마를 체험합니다.

문화는 국경과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를 만나다.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딤니다.

내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도 나와 닮은 나라.

걱정도 많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 생각에 고향 생각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가족의 목소리.  
힘내라는 한 마디에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날 보며 웃어주듯이  
이젠 나도 어렵고 다르다고만 느꼈던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 오감 체험

五感

시각체험 『유기』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 사업목적

-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테마로 나누어 체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이해 고취와 다문화 커뮤니티 사회 구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의 계기

## ◆ 행사일정

- 1차 : 2008년 10월 23일(목) - 시각체험 (수원 - 성곽)
  - ▶ 화성홍보관 견학, 수원 화성 견학, 무형문화재 전수관 견학,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등
- 2차 : 2008년 10월 26일(일) - 촉각체험 (이천 - 공예)
  - ▶ 해강도자미술관 견학, 도자기 강좌, 도자기 만들기, 도예촌 또는 세계도자센터 견학 등
- 3차 : 2008년 11월 6일(목) - 미각 체험 (여주 - 음식)
  - ▶ 오감도토리마을 방문 및 체험(도토리묵 만들기 등)
- 4차 : 2008년 11월 9일(일) - 시각체험 (안성 - 유기)
  - ▶ 안성맞춤박물관 관람, 안성마춤 유기공방 관람 등
- 5차 : 2008년 11월 16일(일) - 후각체험 (김포 - 茶)
  - ▶ 다도 박물관 견학 및 다도예절 교육 등

◆ 사업개요

- 일 자 : 2008년 11월 9일(일)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 주 제 : 시각체험 - 유기
- 참가대상 : 수원 엠마우스
- 참가인원 : 43명 (진행요원 포함)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30 - 12:00	안성맞춤 박물관 관람	
12:00 - 13:00	중식	
13:00 - 13:20	이동	
13:20 - 15:20	너리굴 문화마을 - 금속공예 체험	
15:20 - 15:50	이동	
15:50 - 16:30	대한민국 술박물관	
16:30 -	귀가	

# 목 차

## ◆ 한국문화

문화일반 .....	3
한국의 문화상징 .....	4

## ◆ 시각체험 - 유기

안성시 .....	9
안성맞춤박물관 .....	13
너리굴 문화마을 .....	15
대한민국 술 박물관 .....	18

# 한국문화

시각체험 『유기』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문화 일반

### ♣ 언어 - 한국어

표준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류층의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 문자 - 한글

### ♣ 종교

한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 중 53.6%가 종교를 갖고 있다(1999년 기준). 불교 26.3%, 기독교 18.6%, 가톨릭 7.0%이며, 그 밖에 천도교, 원불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다양한 소수 종교가 있다.

### ♣ 스포츠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축구인 K-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몇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골프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 ♣ 대중문화

한국은 뛰어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문화국가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이 두루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것은 영화산업인데, 2004년에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한국의 문화 상징

### ♣ 한복



한복은 2000년 전부터 입어 온 한국인의 옷이다. 한복은 넉넉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남자옷(바지저고리)과 여자옷(치마저고리)이 조금 다르다.

추울 때는 외출복으로 남녀 모두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발에는 양말과 비슷한 버선을 신고 가축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오늘날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

### ♣ 탈춤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등장한 인물들이 펼치는 민중 연극이다. 가난한 백성, 하인, 천민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을 놀리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은 저항과 풍자가 담긴 탈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풀어냈다.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 이야기와 춤이 다르므로 등장하는 탈도 다르다. 탈춤은 일본 강제 점령기에 금지되어 사라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

발해졌다. 지금은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 ♣ 고려인삼



인삼 뿌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인삼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인삼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산출되는데, 한국 인삼(고려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히고 있다.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약효는 17세기 초부터 널리 알려졌다.

인삼은 처리 및 보존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밭에서 수확한 인삼은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 한다. 또 수삼을 찌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으로는 인삼차, 인삼주, 분말, 절편, 초콜릿, 사탕 등이 있다.

##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전통무술에는 태권도 외에도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벽치기, 섬세하고 부드럽게 몸을 놀리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태권, 검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전통무술은 태권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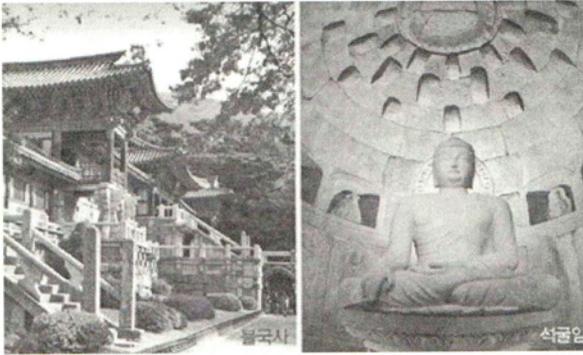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경기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정신적 수련이 더 강조되며, 신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전국 곳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있다.

##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상징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 중 서울에 있

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한글과 조선시대 왕조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불국사와 석굴암



오랜 불교국가였던 한국에는 사찰, 경전, 불상 등 불교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기 751년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사찰건물만이 아니라 달려 있는 탑과 조각품 모두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것들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대형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굴암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기술로 뛰어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전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내는 제사와 이때 연주되었던 음악과 노래 등 왕조 제사 문화 일체를 뜻한다. 한국의 왕실에서 연주되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이 총동원되며 장중하고 우아하다. 서울 종로 4가에 있는 종묘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재현한다.

♣ 한글

한글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주 과학적인 글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시각체험-유기

시각체험 『유기』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 1. 안성의 어제와 오늘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차령산맥의 서운산과 망이산 그리고 백운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예부터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3·1운동의 호국정신과 효를 바탕으로 한 효행정신, 안성맞춤 유기의 장인정신, 안성남사당 등의 예향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안성천과 청미천은 안성의 젓줄로 풍요로운 전원의 낙토를 이루고 있고,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또한 후한 곳이며 삼남의 요충지로 일찍이 농공상이 발달한 지역이며 특히 맞춤유기로 유명한 안성맞춤의 고장이다.

## 2. 역사적 인물

- 박인량(朴寅亮 ? ~1096) 고려초의 문신. 학자로는 대천(代天), 호는 소화(小華)이며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문장이 훌륭하여 항상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담당하였고 『고금록(古今錄)』 10권을 저술하였으며, 신라의 설화집인 『구이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이숙번(李淑蕃, 1373~1440) 조선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성(安城)이다. 1398년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재직할 당시 제1차 왕자의 난을 당하여 방원과 함께 사병을 동원 경복궁을 포위하고 정도전 등을 제거하는데 공로를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 안성군으로 봉해졌으며,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앞장서서 이를 토벌,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 되었다.
- 김중만(金重萬, 1681~1755) 조선의 무장으로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반란의 무리들이 장군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를 꾸짖어 물리쳤고, 다시 회유하자 거짓으로 따르는 체하여 반란의 확증을 잡은 후 한양으로 가서 고발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 3. 생활문화자원

#### ♣ 전통생활민속

-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남사당패는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형성, 발전시킨 유랑예인집단이라 할 수 있다. 남사당패는 맨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 뜯쇠, 가열, 빠리, 저승패, 등짐꾼 등으로 구성되어,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놀이를 행하였다.

대원군은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종 2년(1865) 경복궁의 재건을 강행하여 고종 4년에 준공하였다. 이 때에 공사의 독려와 촉진을 돕기 위하여 온 나라 안에서 일꾼들과 더불어 농악대가 동원되었다. 전국의 농악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주를 보인 안성 돌우물농악대에게 대원군은 옥관자를 하사하였다.

서운면 청룡리 불당 마을은 남사당의 시원지로서 남사당패가 한창 전성기를 이루던 고종 때부터 도태될 때까지 이 지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김기복은 열 살 때 이원보를 만나 상무동을 하면서 가락을 익히기 시작하여 쇠, 벽구, 장구까지 기예를 전수받아 오늘에 재현하고 있다.

- 안성유기 안성은 서울로 통하는 남부의 교통요지로서 안성시장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부터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안성시장은 3남 지방의 물산이 총집산 되었던 곳이다. 안성유기는 이러한 중에서도 가장 중추가 되어 각 지방의 유기점으로 조직되어 생산액도 거창하였다.

#### ♣ 구전설화

- 오방마을 산제당 일죽면 오방리에 방초마을이 있다. 동네는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쓸어 문기가 일쑤였고 물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가 하면 재앙이 들어 유일한 생계의 하나인 농사를 망치게 되니,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해인가 이곳을 지나가던 윤모(某)라는 과객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자세히 들은 그 윤씨는 젊은 사람으로 학식도 있었지만 풍수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

을 뒷등성이에 올라가더니 동네의 지세를 자세히 살핀 다음 다시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었다. “산세가 허술하고 지세가 습하여 그렇군.”하면서 매년 상달(음력 10월) 보름을 택하여 산제당(山祭堂) 제사를 드리되 제주(祭主)는 정결하게 몸을 가꾸어 정성껏 모시게 되면 앞으로는 마을이 평안해지고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후 오방마을 사람들은 운모의 말대로 매년 상달 보름날 산제당에 나가 산제를 지냈다. 그로부터 그 마을에는 재앙이 없고 농사도 잘되어 평화스러운 마을이 된 것이다.

- **갓은 통영, 수선은 안성** 갓을 만드는 본 고장은 경상남도 통영을 들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또한 갓의 수선이라 하겠다. 안성장하면 도구머리 주막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 도구머리에는 이모씨를 비롯하여 서너 가구가 갓을 수선해 생계를 잇는 전문적인 가업으로 삼는 이도 있었다. 갓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를 수선한다는 것도 참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여러 곳에 갓을 수선하는 곳이 있지만 안성 도구머리만큼 알려진 곳도 없으며 당시에는 그 섬세하게 수선하는 기술이 전국에서 제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문헌에서도 볼 수 있으며, 구전으로도 많이 전해오고 있다.

갓을 수선하는데는 흠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흠집을 크게 내고서도 감쪽같이 수선을 해 놓음으로써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한양에까지 번지니 선비들이 흰 갓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수선한 값 때문에 갓 임자와 자주 다투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 멀쩡한 갓을 흠을 내어 값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썽이 나면 어떻게든 떼를 써서라도 그 값을 받아 내고야 말았다고 하여 지금도 이 고장에 서는 경우에 어긋나거나 억지를 쓰면 “이 사람 도구머리에서 왔나.” 하고 놀려대는 것이다. 선조들의 손재주와 기술은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 전통 문화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 4. 관광코스

- 제1코스 <시내중심권> 참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깊은 감동 잠시 머문 자리에 잔잔한 추억이 남는다. 안성유기공방→도기동 3층석탑→낙원공원→안성성당→안성향교→비봉산(비봉산성)→안성맞춤박물관
  
- 제2코스 <동부권> 은은한 웃음 속에 천년 세월을 간직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만나다. 봉업사지 5층 석탑→죽주산성→죽산향교→칠장사(당간, 혜소국사비, 석불입상)→망이산성→기솔리 석불입상
  
- 제3코스 <북서부권> 그날의 함성소리가 하늘을 두드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찾아간다. 3·1운동 기념관→만세고개→청원사 7층 석탑→덕봉서원→오춘환고가→운수암(무한성터)→대림동산→양성향교→미리내성지→고삼저수지→김중만장군영정
  
- 제4코스 <동남부권> 충효, 절개, 예술혼으로 민족정기를 일깨운 역사 속 인물을 만난다. 이덕남장군묘→홍계남장군고루비→바우덕이묘(남사당 꼭두쇠)→청룡저수지→청룡사→금광저수지→석남사(영산전,대웅전)→안성문화원(안성객사)

## 안성맞춤박물관

### □ 유기전시실



안성에서 유기를 언제부터 만들었는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안성유기관련 가장 오래된 문헌은 1614년의 택당 선생별집이다. 택장 이식 선생이 천장과 관련하여 전라도에서 올라오면서 안성의 유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 안성에서는 이미 1614년에는 유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유기공업이 발달한 안성에서는 물품이 견고하든지,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고비가 확실하든지, 소홀히 하던 물건이 갑자기 필요에 딱 맞을 때 안성맞춤이라고 한다고 그 어원을 설명하였다.

“안성마침”은 국문법이 통일되기 이전인 해방 전에 사용한 말인데 안성맞춤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안성유기에 나온 명문만 보더라도 “안성맞침”, “안성맞춤”, “안성맞춤”, “안성” 등으로 다양하다. 안성에서 만든 유기는 바닥에 지금의 상표와 같은 개념으로 제작자에 따른 다양한 표시를 해 두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동아일보 및 별건곤 기사를 보면 대체로 “안성마침” 또는 “안성맞침” 2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흔히 안성은 주물유기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1926년 동아일보 기사에 “안성유기에는 두드러져 만드는 방짜라는 것이 있고 부어서 만드는 붓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물품이 들어오게 된 뒤로는 유기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짜는 없어지고 붓백이라고 부르는 주물유기만 남아 지금까지 전해움을 알 수 있다.

## □ 농업역사실



안성맞춤 쌀, 포도, 한우, 배, 인삼 등 안성을 대표하는 5가지 농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농기구와 모형 그리고 고 영상을 통하여 안성의 농업을 설명한다. 봄의 파종과 여름의 김매기, 가을의 수확, 겨울철의 가마니 짜기 등 계절별로 농사과정을 보여준다.

## □ 향토사료실



안성의 4대 정신이라 부르는 3·1 독립운동, 죽주산성전투 등 호국정신, 백동연죽장, 입사장 등 장인정신, 안성향교, 죽산향교 등 선비정신, 태평무, 향당무, 남사당 등 예향정신 등을 그래픽패널과 영상, 작동모형 등을 통하여 보여준다.

## 너리굴 문화마을

### □ 너리굴 미술관

“미술을 위한 사람을 향한 열린 공간 ”



총 면적 120여 평, 높이 4.5m의 너리굴 미술관은 현대적인 양식의 절제미 속에 고아한 아취를 담고 있는 미술전시 공간이다. 미술품을 관람하기에 가장 적절한 밝기와 구도의 조명 설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시에서 보관까지 미술관으로서의 총괄적인 기능을 아우른다. 개관 이래 작가 권용자의 <누드 크로키 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진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왔다. 특히 예술가들의 집성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안성 내에서 쓰임새 많고 특색 있는 전시 발표 공간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 너리굴 아트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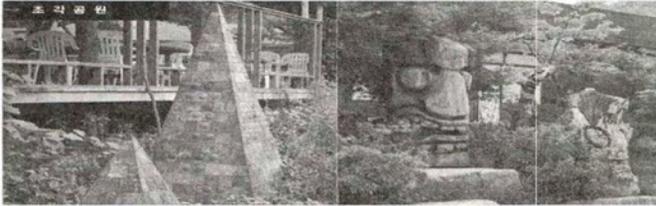
“감상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니크한 곳 ”



너리굴 아트숍은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소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다. 너리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있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공간이다.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보아야 할 곳. 도자기, 액세서리, 생활소품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이경자 선생의 금속공예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 □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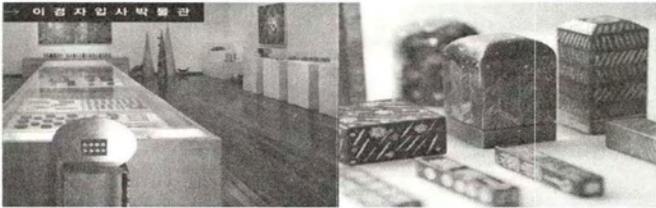
“너리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공원 ”



너리굴 문화마을 안에는 조각공원이 있지만, 어디에도 조각공원이라고 따로이 구획된 공간은 없다. 입구에서 어디에선가 본듯한 얼굴을 한 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 관장)의 장승과 마주했나 싶으면, 지붕을 타고 오르는 조각가 최문철의 설치작품이 시선을 공중으로 이끈다. 길 옆에서는 금속공예가 이경자, 조각가 류종민의 작품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본관 숙소 입구의 벽 앞에서는 도예가 변승훈의 도자기 파편 작품이, 심지어 수영장 물 속에서조차 서양화가 김수현의 그림이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 □ 이경자 입사박물관

“무형문화재의 귀한 입사작품들이 한자리에 ”



흔히 상감으로 불리는 입사는 강한 금속표면에 금이나 은 등 무른 금속을 박아 넣어 무늬를 내는 것으로 환두대도 및 향완, 용구류 등에 주로 쓰였던 기법이다. 삼국시대에는 입사를 넣은 환두대도가 많았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구류가 많았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 담배합, 화로, 쯏대 등 생활용품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추천작가이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이경자 선생은 입사의 전통적 맥을 이으면서도 실생활 속의 공예로까지 연결지어 풍요로운 입사의 예술성을 펼쳐 보이는 금속공예 작가다. 너리굴 문화마을 안에 자리한 ‘이경자 입사박물관’은 선생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수의 입사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 칠보공예



칠보는 금, 은, 유리, 진주, 산호, 마노, 호박 일곱가지의 보물을 말하며 보물처럼 아름다운 색을 낸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금속의 바탕 재료에 칠보유약을 올려 가마에 구워내는 독특한 기법으로 삼국시대에 시작되었다. 현대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장신구뿐 아니라 실생활 용품에까지 응용되고 있다.

## □ 도자공예



물레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도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생활 속에 쓰이는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고 화장토로 무늬를 넣어볼 수 있다.

## □ 금속공예



금속공방은 백동선, 칼라와이어, 은점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활소품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다. 백동선을 직접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리고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 목걸이와 열쇠고리, 칼라와이어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조립해서 만드는 중 모빌, 칼라와이어를 나무판에 붙여서 만드는 메모꽂이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만들어보는 와이어로 된 발, 또 점토형태로 되어있는 은을 손쉽게 원하는 모양의 팬던트로 만들어 은반지나 은목걸이로 완성해갈 수도 있다.

## □ 칼라양초 공예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 간절한 기원의 도구로 혹은 특별한 날 다양하고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재미있게 양초를 만들어볼 수 있다.

## □ 비누공예



천연비누는 합성 향료 대신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사용하고, 색깔이 필요하다면 미네랄 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부제 및 계면 활성제의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게 제작한다.

## 대한민국 술 박물관



안성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술 박물관은 술과 관련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 1전시실에는 각종 민속에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민속품 전시관', 전통술 빚기에 쓰이는 각종 양조도구,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는 '우리술 전시관', 술 관련 고서적, 논문 등의 관련문서, 서적을 보관, 열람할 수 있는 '문서 자료관'으로 구성되어, 과거 우리의 생활상과 우리 술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제 2전시실에는 소주, 맥주, 와인, 양주, 전통 민속주 등의 다양한 술과 광고 홍보물 등이 전시되어 술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야외 전시관에는 전통주를 빚을 수 있는 부뚜막 시설과 술방(발효, 숙성실)을 살펴볼 수 있다.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 · 신미영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 화 (031) 239-1020  
E-mail kccf-kg21@hanmail.net  
Homepage <http://kccfgg.or.kr>

※ 본 책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